

News

예금보다 대출 많아도 봐준다는 금감원

이데일리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각 시중은행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예대율 관련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
행권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확대를 때라는 점을 고려해 예수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뜻

시중은행 수신금리 인하 시작...줄줄이 인하 예고

디지털타임스

3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예·적금 상품 금리 인하의 신호탄을 쏘면서 다른 시중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각 수신 금리 조정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중...금리 인하폭은 0.2~0.3%포인트 안팎 수준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靑 "DLF사태 검사·제재 문제 없다"... 한숨 돌린 금감원

한국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수개월 간 감찰한 결과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최종 결론
민정수석실이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질책성 소환'이 아니라 이 같은 결과를 전하며 종합적인 의견을 점검한 것 아니냐는 해석

하나銀, DLF 배상금 지급 90% 넘어서

파이낸셜뉴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피해고객의 92.6%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이미 피해고객의 97%에게는 배상비율 통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점 방문 고객이 줄면서 배상 협의 속도가 늦어졌지만, 올 하반기 중으로는 배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

보험업계, 집단감염 잇따라 발생...내부고발까지 등장

뉴시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KB생명보험 전화영업 보험대리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전날 삼성화재 역삼영업점에서도...
당국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부고발까지 이어지며 보험사들의 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

금리인하 후폭풍, 한화생명도 예정이율 내린다

머니투데이

한화생명은 내달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지난 4월에 2.5%에서 2.25%로 조정한 후 3개월여 만
"하반기 중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속되는 기준금리 인하 등 대외적인 영향으로 특히 금리확정형 종신형 상품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

코로나궤 발행 늘어난 회사채 시장...증권사 수수료 수입 위안

데일리안

4일 금융당국·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지난 달의 1000억원 대비 98.4%(6조3,000억원) 증가
기준금리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회사채 이자율도 덩달아 낮아지자 자금조달에 박차를 가해...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함께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

라임·코로나에 발목 잡힌 신한·하나금투 '초대형IB의 꿈'

조선비즈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자본요건을 갖춘 곳들도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초대형 IB 심사 신청을 내지 못한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사태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기다리는 처지여서 중징계를 받을 경우 초대형 IB의 꿈을 당분간 접어야 할 가능성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

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

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